07/26 ~08/01 14:00 ~ 20:00

98년생이수빈

류정하 • 왕칸나 • 이유진 이지은 • 이한나 • 정민지 • 한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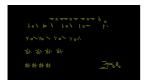
















1

류정하 (Ryu Jeongha) <보이지 않는 굴레에 의해> (By An Invisible Bondage) (2021) 백조형토, 철 기둥 (Ceramics, Steel) 130 x 70 x 180 cm

ieongha_ware

2

류정하 (Ryu Jeongha) <미로> (Maze) (2022) 아사천 뒷면에 목탄, 콘테 (Charcoal, Conte on Cloth) 149,5 x 92 cm

ieongha_ware

3

정민지 & 이지은 (Jeong Minji & Lee Jieun) <웃지 않는 공주와 광대> (The Little Clown and The Princess Who Never Smiles) (2022) 좋이에 인쇄 (Print on Paper) 21 x 29,7 x 0,83 cm

(a) ford.mustang.convertible & @erisilverart

4

정민지 (Jeong Minji) <끝말잇기 놀이> (Word Chain Game) (2022) 단채널비디오, 컬러 (Single Channel Digital Video, Colour) 무한한 길이, 사운드 없음 (Infinite Duration, No Sound) 203,2 x 114,3 cm

(iii) ford.mustang.convertible

5

이지은 (Lee Jieun) <반란의 시작> (The Beginning of a Rebellion) (2022)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16,8 x 91 cm

(o) erisilverart

6

한고은 (Han Goeun) <극ROCK정토> (Extreme Rock Land) (2022)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i) meulnyo_the_painting













7

한고은 (Han Goeun) <젤라!> (Jella!) (2022) 종이에 아크릴 과슈 (Acrylic Gouache on Paper) 73,5 x 52 cm

(iii) meulnyo_the_painting

8

한고은 (Han Goeun) <행복한 세계지배> (Happy World Domination) (2022)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 x 25,8 cm

meulnyo_the_painting

9

한고은 (Han Goeun) <엄마는 오리 먹이를 잘 만들고 지유는 만드는 법을 잘 안다> (Mom is good at making duck feed and Jiyu knows how to make it) (2022)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16 x 25,8 cm

meulnyo_the_painting

10

이한나 (Lee Hann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2022) C 프린트 (C-Type Print) 11 x 11 cm

(iii) hanna_me.planet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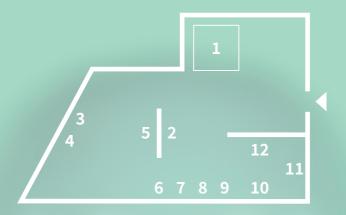
왕칸나 (Zhalil Kanna) <flæsh> (2021) 종이에혼합재료 (Mixed Media on Paper) 145 x 90 cm

(o) kyzshaitan

12

이유진 (Lee Yujin) Triptych from the Third Eye (2021) 아크릴판에 판화 (Engraving on Plexiglas) 150 x 240 cm

(i) jo_wii



98년생 이수빈

이 전시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출발점으로 삼아 1998년에 태어나 현재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약 한 세대 이후의 여성들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남주작가가 명료하게 보여준 것처럼, 차별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적 경험들을 성찰해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에 착안한 이 전시는 젊은 아티스트들 이 일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전 시 작품들은 몸에 대한 탐구에서 허구적 세계에 대한 상상까 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젠더를 사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 여줍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상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차별의 여러 형태의 묘사를 통해 30대 여성 김지영의 일상을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이 소 설은 특정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는 데 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시 <98년생 이수빈>은 이러한 한 계를 넘어,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성차별의 다양한 양상 들을 보여주며, 그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하고자 합니다.

<98년생 이수빈>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들은 작품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전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집단 의식을 통해 이수빈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시 는 이수빈이라는 인물을 하나의 공통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모순으로서 그려냅니다.



Lee Subin, Born 1998

This exhibition takes the popular novel "Kim Jiyoung Born 1982" ("82년생 김지영") as a starting point from which to provide a new account of the everyday life of almost one generation later, which is born around the year 1998 and is now in their early to mid-20s. As the author Cho Nam-joo (조남주) strikingly showed, we can learn a lot from reflecting on our daily experiences in a society that is often hostile to the women who live in it

Thus, this exhibition – in the spirit of the novel – gathers different accounts of young artists reflecting on their everyday lives. The artworks show a variety of approaches to contemplating gender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spanning from exploring the body to imagining fictional worlds.

The original novel depicts the ordinary life of Kim Jiyoung (김지영), a woman in her 30s, describing daily and omnipresent form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while many were able to relate to the story of the best-selling novel, it is also limited by portraying one life in one specific time and space. The exhibition "Lee Subin, Born 1998" ("98년생 이수빈") aims to fill this gap by adding a variety of new accounts to the debate, stressing different aspects of the issue.

Since "Lee Subin, Born 1998" ("98년생 이수빈") is conceived as a group exhibition, the artworks are more than just themselves; but also create the identity of Lee Subin (이수빈) through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It shows a character not only as a common experience but also the contradictions within us.